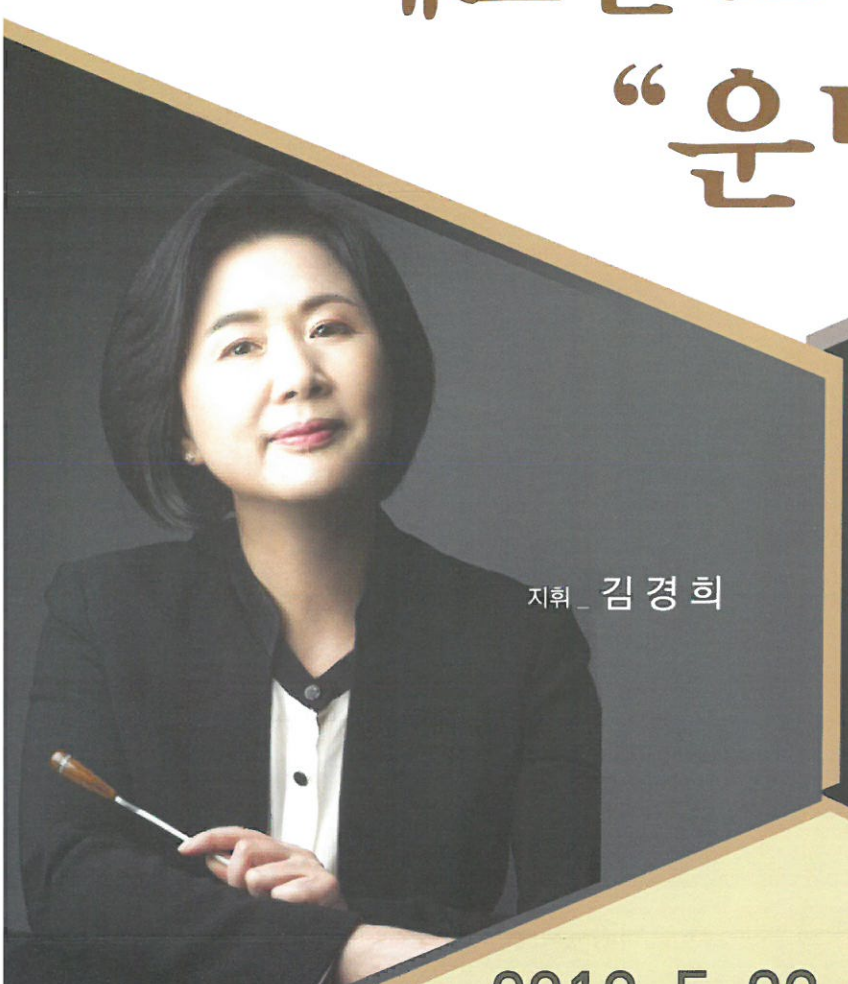
Jeonju Symphony Orchestra
전주시립교향악단

## 전주시립교향악단 236회 정기연주회
## 236th Regular Concert

#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지휘 _ 김 경 희

바이올린 _ 배 원 희

## 2019. 5. 29. Wed. 19:3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주최 찾아가는 전주 세계를 비전다

### PROGRAM

C. Saint-Saëns / Suite Algérienne Op.60 : IV. Marche militaire francaise
생상스 / 알제리 모음곡 中 프랑스 군대 행진곡

C. Saint-Saëns / Violin Concerto No. 3 in b minor, Op. 61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3번 b단조, 작품. 61

L. v.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8
베토벤 /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8

입장권
S석(1층) 10,000
A석(2층) 7,000

공연문의
274-8641

인터넷예매(전화예매)
나루컬쳐 1522-6278
http://www.naruculture.com

30% 할인
학생(대학생포함),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본 공연은 8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Jeonju Symphony Orchestra
전주시립교향악단

# 전주시립교향악단 236회 정기연주회
# 236th Regular Concert

#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지휘 _ 김 경 희

지휘자 김경희는 우리나라 교향악 역사상 여성으로써는 최초로 오케스트라 지휘계에 한 획을 그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지휘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작곡과를 졸업 후 독일 베를린국립예술대학 지휘과를 졸업했다.
1989년 대전시향의 초청으로 첫 지휘계에 등단 후 1991년 서울시향 신진 지휘자로 초청되어 데뷔 연주를 하며 본격적인 연주 활동을 시작 하였다.
그 후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부산시향, 대구시향, 광주시향, 창원시향, 제주시향, 포항시향, 진주시향, 울산시향, 목포시향, 수원시향, 춘천시향, 과천시향, 부천시향, 인천시향과 코리언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프라임필하모니오케스트라등 우리나라의 주요 오케스트라를 수차례씩 지휘했다. 그리고 러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루마니아국립오케스트라, 소피아국립오케스트라,불가리아프라짜 심포니오케스트라, 일본 아시아8개국 연합 프렌드릭오케스트라등 국외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또한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서울페스티벌앙상블, 채리티챔버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다. 2008년부터 상임지휘자로 활동했던 과천시향과 중국 북경시 연주, 독일 카셀시의 세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와 쟈브리켄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한국 최초로 숙명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필하모닉홀 축제 개막연주, 또 미국 인디애나주의 초청으로 인디애나대학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세계 각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2016년 한 해 동안 국립오페라단과 전국 각지를 돌며 오페라의 대중화에 기여 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간 국립창작국악단과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나라 창작 국악 세계의 발전 가능성을 활발히 제시 하였다.
2018년도엔 국악창작계의 가장 큰 등용문인 아창제를 지휘했으며 그 해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되어 3개국 연합 관악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다각적인 그의 음악세계를 넓혀 왔다.
수상경력은 2012년 여성가족부 주관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예술인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였고 2019년에 음악분야의 도전한국인상을 수상하였다. 수많은 연주를 통해 그의 지휘는 섬세한 테크닉과 세련되고 깊이 있는 음악 해석, 탁월한 통솔력으로 오케스트라와 관중을 압도 하는 저력을 가진 지휘자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과천시향 상임지휘자와 숙명여대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현악과 교수, 사단법인 한국지휘자협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9년 3월 전주시립교향악단 제8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취임하였다.

바이올린 _ 배 원 희

영국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음악지 스트라드는 한 젊은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보기드문 극찬을 보냈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유럽을 중심으로 솔리스트로, 챔버 뮤지션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배원희가 그 주인공이다.
만11세 때 서울시향과 협연 무대로 데뷔한 배원희는 그 후 서울 바로크 합주단,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러시안 내셔널 오케스트라, 벨기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캐른트너 필하모니,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러시아 모스크바 스타니슬라브스리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오케스트라, 뉴욕 써밋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TIMF 오케스트라 등과 수많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금호영재 독주회,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 로스엔젤레스 미술 박물관, 잘츠부르크 국제음악축제(Salzburg Festspiele), 모짜르테움 Grosser Saal,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홀, 스위스 제네버 빅토리아 홀, 바젤 Beyeler Foundation, 체코 프라하 Martinue Hall, 런던 네셔널 갤러리, Royal Academy of Arts, 함부르크 Laeiszhalle, 이탈리아 Caserta 국제음악축제 등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예원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함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한국일보 콩쿨 대상, 서울 바로크 합주단 콩쿨, 서울 심포니 콩쿨, 서울 청소년 실내악 콩쿨, 문화일보 콩쿨에서 모두 1위 입상함으로 한국의 음악계를 이어나갈 재목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그 후 국제무대에서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2위, 독일 마르크노이키르헨 국제콩쿨 입상 및 현대 음악 특별상,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제 음악제 최고 연주자상, 미국 뉴욕 써밋 음악 축제 콘체르트 콩쿨 1위, 뉴욕 Friday Morning Club Music Competition 1위, 필라델피아 국제 현악 축제 대상으로 입상한 바 있으며 특히 2007년 이탈리아 리피쳐 국제 바이올린 콩쿨에서 우승하고 파가니니 특별상을 수상하여 한국인으로서 25년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외에도 모스크바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쿨, 루마니아 조르지 에네스쿠 국제 바이올린 콩쿨, 윤이상 국제 바이올린 콩쿨 등 수많은 국제 콩쿨에서 입상하였다. 또한 지휘자 Justus Frantz의 초청으로 참가한 Ocean Classical Award에서 Philharmonie der Nationen 오케스트라와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을 성공리에 마치며 관객들의 투표로 우승하였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큰 상금의 관객상으로 알려진 이 수상 후 독일 Privatbank Hauck und Aufhäuser 문화재단의 2013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독일 주요도시에서 독주 무대에 섰다.
솔로 연주 뿐아니라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미국 라비니아 페스티벌, 스위스 세이지 오자와 페스티벌, 독일 Schleswig-Holstein 페스티벌, 독일 빌라무지카 등 명성 있는 국제 실내악 축제에 초대되어 첼리스트 린 헤렐, 옌스페터 마인츠, 볼프강 엠마뉴엘 슈미트, 로렌스 레써, 폴 캐츠, 바이올리니스트 레본 칠링기리안 등 세계 유명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였으며 에스메 콰르텟 (Esmé Quartet)의 제 1바이올린 리더로서 세계 최고 권위의 런던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 4중주 콩쿨에서 한국인 단체 최초로 우승 및 4개의 특별상을 거머쥐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솔로뿐 아니라 콰르텟으로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2019년 9월에는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 데뷔무대와 10월에는 영국 런던 위그모어홀에서 데뷔무대를 갖는다.
예원학교에서 이선이,이종숙을 사사하고 3학년 재학중 도미, 미국 커티스 음대 (The Curtis Institute of Music)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영국 왕립음대(Royal College of Music Londen)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식 후원하는 영국왕립음악대학협회 ABRSM로 부터 전액 장학금과 지원 받으며 석사학위 취득, 졸업 독주회 심사위원 전원 만점을 받고 찰스 황태자에게서 직접 특별상을 받았다. 퀼른 국립음대 (Hochschule für Music und Tanz Köln) 에서 미하엘라 마틴을 사사하며 콘체르트엑자멘(Konzertexamen) 과정 최우수 졸업,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Conservatorie National Supe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에서 전 서울시향 악장 스베틀린 루세프를 사사하며 최고 연주자 과정(3e cycle DA)을 졸업했다. 현재 독일 뒤셀도르프 루빈스타인 아카데미 최연소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독일 바이올린 아셋 문화재단으로 부터 안드레아 과르네리 1690년 (Andrea Guarneri 1690)바이올린을 후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작곡가이기도 한 배원희는 합창곡 이사야 12장 '주 여호와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시편 13편' 등 다양한 편성의 찬송가를 작곡하였으며 바이올린&피아노 듀오를 위한 찬송가를 편곡하기도 했다. 이러한 작곡과 편곡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음악가이다.

## PROGRAM

- C. Saint-Saëns / Suite Algérienne Op.60 : IV. Marche militaire francaise
  생상스 / 알제리 모음곡 中 프랑스 군대 행진곡
- C. Saint-Saëns / Violin Concerto No. 3 in b minor, Op. 61
  생상스 / 바이올린 협주곡 3번 b단조, 작품. 61
- L. v. Beethoven / Symphony No. 5 in c minor, Op. 68
  베토벤 /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8